

북한 사전의 음운 정보

— ‘조선말대사전’(1992)의 고저·장단 발음 표시에 대한 한 분석 —

權 仁 瀚

(국립국어연구원·학예연구사)

1. 머리말

본고는 1992년 평양에서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앞으로 ‘대사전’으로 줄임)에 나타난 발음 표시를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북한어에 대한 연구들¹⁾에서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였던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해 구명함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북한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헌들만으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1960~1962년에 여섯 권으로 나온 ‘조선말사전’(앞으로 ‘6권 사전’으로 줄임)에는 표제항에 장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에 나온 사전들²⁾에서는 이 장단의 정보를 사전에서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저에 대한 정보는 그 동안 북한에서 발행된 일부 문법서들에 약간의 자료가 소개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그 음가

1) 지금까지 북한어의 고저 장단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는 이현복(1992), 이기문 외 5인(1990), 전학석(1991)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이현복(1992)은 ‘조선문화어문법’(1979)의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어의 고저 장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해서 그 구체적인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었다(자세한 것은 본고 3.1.1 참조). 한편 이기문 외 5인(1990), 전학석(1991)은 문화어가 아닌 북한 방언의 고저 장단에 대한 연구이므로 북한의 현행 표준어인 문화어의 그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2)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 등을 말한다. 북한의 사전 편찬사에 대해서는 차재은(1991)의 논의를 참조.

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문제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을 때까지 논의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1992년에 나온 ‘대사전’에서 고저와 장단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독특한 발음 표시가 채택되었음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발음 표시를 분석하여 문화어의 고저와 장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 ‘대사전’의 발음 표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3장에서 ‘대사전’과 ‘6권 사전’의 발음 표시, 그리고 북한에서 발행된 여러 문법서에 나타난 자료 등을 비교하여 문화어에 있어서의 고저의 특징, 장단의 변화 및 남북한의 차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발음 표시의 특징과 문제점

‘대사전’은 음소 차원의 발음 표시 외에 고저와 장단의 운율적 요소에 대한 발음 표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발음 표시를 이원적으로 행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1 음소적 요소의 발음 표시

먼저 음소 차원의 발음 표시는 기존의 사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 밝힌 음소적 발음에 대한 발음 표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ㄱ. 단어 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이웃한 말소리와 어우르면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검다[—따] 결정[—쟁] 그믐달[—딸] 교수법[—뻬] 노을빛[—뵈]

ㄴ. 단어 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이웃한 말소리와 어울릴 때 소리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입천장소리로 되거나 《ㄴ, ㄹ, ㅇ, ㄷ》로 발음되는 경우.

굳이[구지] 가을누에[—루—] 같이[가치] 들놀이[—롤—]

붙임[부침] 천리마[철—] 만져느리[만—] 곤난[골란]

ㄷ.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여들어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밭일[반닐] 덧이[던니] 배머리[뵤—] 짓이기다[진니—]

ㄹ. 단어 안에서 순환소리가 그와 나란히 있는 자음 《ㅎ》과 어울려서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 곱하기[—과—] 담백하다[—카—] 노랗다[—타] 닫히다[—치—]
- ㉑. 한자어에서 받침이 없는 말소리 뒤에 오는 첫소리 《ㄹ》이 소리나지 않는 경우.
- 대렬[—열] 규률[—율]
- ㉒. 형태부 사이에서 모음 앞의 자음이 속터침으로 발음되면서 다음에 오는 모음 소리와 잇달아 발음되지 않는 경우.
- 웃안[—은—] 꽃잎[—핀] 걸어림[—걸—] 앞앞이[—압—]
- ㉓. 둘 받침에서 어느 한 쪽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
- 이때는 그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발음 소리를 ()안에 넣어서 함께 밝혀 줌.
- 훈[—훈(훈기)] 값[—값(값시)]
- ㉔. 단어 결합의 경우.
- 결합의 긴밀성이나 발음에서 휴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언어 현실에 맞게 조절.
- 금속활자[—짜] 민족문화[—중—]
- ㉕. 올림말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 9.9절[구구—] 3대혁명[삼—형—]

위에서 나타난 발음 표시의 대상은 ‘ㄴ, ㄹ, ㄷ’의 뒤 또는 사이시옷 환경에서의 경음화, 구개음화, 자음 동화, 소리의 덧남, 격음화, 한자어 ‘-렬, -률’의 발음, 형태소 결합에서의 대표음화 및 연음화, 겹받침과 관련한 곡용형의 발음, 단어 결합에서의 발음 등인데, 이러한 발음 표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음운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나는 규칙성을 보일 때에는 그 발음 표시를 생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7)의 발음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받침소리 [ㄱ, ㄷ, ㅂ] 뒤에서의 규칙적인 경음화 현상에 대한 발음 표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가로워다’의 발음 표시를 ‘[—익따]’가 아닌 ‘[—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 준다³⁾. 말하자면 사전에서의 발음 표시를 최소화하여 사전 편찬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어발음법’ 제25항에 예시된 ‘밥그릇[밥그륄], 발판개[발판개], 옛보다[연보다]’ 등의 발음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은정(1990:58)에서는 이 예시어의 발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남북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줄고(1993:183)에서는 이를 다른 규정들의 예시어와 비교하여 실무자의 착오로 경음화의 발음 표시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대사전’의 발음 표시와 관련하여 볼 때는 비록 경음화의 발음 정보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표제어의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나타나 예외 없는 규칙성을 보임으로써 그 발음 표시를 생략한 것으로는 ‘계, 레, 헤’의 발음, 모음 사이에서의 ‘ㅎ’의 발음, 받침 소리의 대표음화 등이 더 있다. 먼저 ‘계, 레, 헤’의 발음은 ‘문화어발음법’ 제4항에서 [계, 레, 헤]로 발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발음 표시가 전혀 없는 것도 예외 없는 규칙성에 의한 처리로 보인다. 다음으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어간 발음 ‘ㅎ’을 발음하지 않도록 정한 ‘문화어발음법’ 제29항에 규정에 따라 ‘낱이, 쌓이다, 닿아굽힘성[—뽀뽀]’ 등에서의 ‘낱-, 쌓-, 닿-’의 어간 발음 ‘ㅎ’에 대한 발음 표시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받침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ㅍ’이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ㄴ, ㅂ]으로 발음되는 대표음화 현상도 발음 표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줄늬시[—랴—], 고개짓[—짖], 해빛[—뽀], 풀잎[—뽀]’과 같이 ‘ㄱ, ㄴ, ㅂ’ 이외의 받침이 발음 표시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에 따른 보충 설명이 ‘일러두기’나 ‘부록’ 등에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사전’의 음소적 발음 표시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것은 ‘문화어발음법’에서 예시된 발음과 어긋나는 발음 표시의 존재, 발음 표시의 불균형 문제, 활용형에서의 발음 변화에 대한 처리를 도외시한 점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문화어발음법’에서 예시된 발음과 어긋나는 경우로는 제17항의 ‘안사돈[안사돈],’ 제27항의 ‘바다일[바다일], 배개잇[배개인],’ 제28항의 ‘개바닥[개바닥],’ ‘노래소리[노래소리]’ 등에서 예사소리로 또는 소리의 덧남이 없이 발음하도록 예시한 데 비하여, ‘대사전’에서는 이들의 발음을 각각 ‘[—싸—], [—닐]’, [—갠닛], [—빠—], [—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철저한 규범성의 지향을 발음 표시의 대원칙으로 천명한 ‘대사전’⁵⁾에서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대사전’의 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대사전’의 편찬에 참가한 실무자들이 1987년에 발표된 ‘문화어발음법’을 충실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는 격음화와 관련된 발음 표시가 ‘문화어발음법’(1987)보다는 ‘표준발음법’(1966)에 더 가까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4) 이것은 ‘[—단닐]’의 착오로 보인다.

5) ‘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는 발음 표시의 원칙의 하나로 “발음규범을 바로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음상 주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바른 발음을 []안에 넣어서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데에 있다.

- (2) ㄱ. 그럴법하다[—뻬파—], 길죽하다[—쭈카—], 밀접히[—쩍피]
 ㄴ. 걸놓다[—로타], 덩덩그렇다[—러타], 울리쌩다[—싸타]

(1ㄷ)에서 밝힌 발음 표시 방법과 (2ㄱ, ㄴ)의 발음 표시를 비교하면 일정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1ㄷ)에서는 ‘곱하기, 댁뻬하다’와 같이 받침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이든 ‘노랳다’와 같이 받침 ‘ㅎ’이 다른 예사소리와 결합되는 경우이든 구분 없이 같은 방법으로 발음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의 발음 표시에서는 (2ㄱ)과 (2ㄴ)과 같은 구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2ㄱ)과 (2ㄴ)과 같은 구분은 바로 ‘표준발음법’(1966)의 제16항(쫑다[조타])과 제21항(먹히다[먹키다])에서 예시한 발음 표시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문화어발음법’(1987)에서의 제19항(쫑다[조타])과 제20항(먹히다[머키다])의 발음 표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말하자면 (1ㄷ)은 ‘문화어발음법’에 근사한 발음 표시법이지만, (2ㄱ, ㄴ)에 나타난 실제 발음 표시는 ‘표준발음법’에 더 가까운 것임이 드러난다. 이것은 아마도 ‘대사전’의 원고 집필 당시에는 1966년의 규범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출판 작업 도중에 규범이 새로 발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새 규범을 다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사전’의 발음 표시를 조사해 보면 발음 표시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있다.

- (3) ㄱ. 폭넓다[퐁넵따]
 ㄴ. 훗훗하다[—툏타—], 핫핫하다[—퇴타—]
 ㄷ. 가슴앓이[—아리], 귀앓이[—아리], 구멍푼이

(3ㄱ)의 예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ㄱ, ㄷ, ㅂ] 뒤에서의 경음화에 대한 발음 표시를 생략한 것에 어긋나는 경우이며, (3ㄴ)의 두 예는 음소적으로 동일한 환경이면서도 격음화와 관련한 발음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3ㄷ)의 예에서는 ‘문화어발음법’ 제29항의 규정에 따라 받침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생략되는 정보를 ‘~앓이’의 표제어들에서는 정확히 주고 있으나, 음소적으로 동일한 환경인 ‘구멍푼이’의

에에서는 그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발음 표시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낳고 만 경우인 것이다⁶⁾.

음소적 발음 표시에 있어서의 마지막 문제는 활용형에서의 발음 변화 정보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1ㄱ)의 발음 표시 방법을 통하여 곡용형의 발음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활용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시도를 않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어발음법’ 제9항에서 받침 ‘ㄷ, ㅌ’이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ㄷ]로 발음하도록 정한 것, 제18항에서 받침 ‘ㅈ, ㅊ, ㅉ’ 뒤에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경우 그 ‘ㅅ’의 발음을 [ㅆ]으로 정한 것, 제29항에서 어간말 받침 ‘ㅈ, ㅊ, ㅉ’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경우 ‘ㅈ’을 발음하지 않도록 정한 것, 그리고 제31항에서 겹받침 ‘ㄷ’이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경우 ‘ㅈ’을 발음하지 않도록 정한 것 등은 필요한 활용형과 함께 그 발음까지도 제시되어야 완전한 발음 표시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⁷⁾.

2.2 운율적 요소의 발음 표시

고저와 장단에 대한 발음 표시는 기존 사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일러두기’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4) ㄱ. 높낮이는 올림말 뒤에 숫자 1, 2, 3으로 표시.

이 숫자는 고성능스펙트럼분석기(2033)로 측정된 결과를 평균한 것으로서 1은 낮은 소리, 2는 보통 소리, 3은 높은 소리를 의미함.

강가[—까] 2 2

마늘모 2 3 2

새말개지다 2 3 3 2 1

ㄴ. 길이는 높낮이를 나타내는 숫자 옆에 두점을 찍어서 표시.

두점을 찍은것은 긴소리를 의미함.

가매지다 2: 3 2 1

발그레하다 2 3 3: 2 1

6) 이러한 발음 표시에서의 불균형 문제는 남한의 사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병근(1989)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

7)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전 편찬에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을 남기심(1987), 이병근(1989)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음성 분석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고저를 높은 소리, 보통 소리, 낮은 소리의 세 단계로 수치화하고, 음장은 해당 음절 뒤에 ‘:’로 나타낸 것이 이 발음 표시의 특징인데, 이것은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발음한다”는 ‘문화어발음법’ 제1항의 규정울 구체화하였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개별 어휘의 높낮이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위의 제1항만으로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으나,⁸⁾ ‘대사전’의 발음 표시를 통하여 개별 어휘들의 고저와 장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만큼 남북한의 발음의 차이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고저나 장단이 표시된 자료의 대부분이 고유어 중심의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512 단어 중 5,068 단어로써 약 92%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저나 장단이 표시된 표제어의 선정의 면에서도 고저나 장단이 표시된 표제어와 그렇지 않은 표제어 사이에 일정한 원칙을 찾아내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보자의 숫자, 성별, 나이, 출신 등의 정보⁹⁾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다만, 북한에서 그 동안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과 이 자료의 고저 부분을 조사, 분석한 책임자로 판단되는 김성근(1990)의 논의에 나타난 자료와 주목할 만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자세한 것은 본고 3.1.1.의 논의를 참조),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문화어의 고저, 장단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어의 고저, 장단에 대한 분석

3.1 고저

3.1.1 기존 자료와의 비교

- 8) 그 동안 북한에서 나온 문법서 또는 규범 해설집들에서 고저와 장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제시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 9) 이와 관련하여 다년간 북한 방언의 고저 장단을 조사해 오신 박충구 선생님께서 ‘대사전’의 자료가 대체로 평안도 일부 방언(정주, 박천)의 고저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알려 주셨다. 앞으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일단 이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저의 발음을 조사, 분석한 책임자는 준박사 김성근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근은 ‘대사전’ 말미에 소개된 편찬 성원 명단에 고저의 담당자로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문’ 1990년 1호에서 ‘대사전’의 고저 표시와 일치하는 자료에 대한 논의를 펼쳤음이 주요한 근거이다. 먼저 김성근(1990)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김성근(1990) 자료와의 비교

| 표제어 | 김성근(1990)(단위:Hz) | 조선말대사전(1992) |
|--------|-------------------------|--------------|
| 가카이 | 120 130 115 | 2 3 2 |
| 가뜬히 | 120 145 105 | 2 3 2 |
| 가뵈이 | 115 135 115 | 2 3 2 |
| 가재밥 | 120 130 125 | 2 3 2 |
| 갈구리 | 115 125 115 | 2 3 2 |
| 갈개군 | 120 130 135 | 2 3 3 |
| 갈개잠 | 120 125 120 | 2 3 3 |
| 간간하다 | 125 125 125 110 | 2 3 2 1 |
| 멀리하다 | 115 135 120 110 | 2: 3 2 1 |
| 가을장마 | 120 125 125 115 | 2 3 3 2 |
| 가재미젓 | 125 130 130 125 | 2 3 3 2 |
| 가죽채찍 | 115 130 130 110 | 2 3 3 2 |
| 가지찬국 | 125 125 130 125 | 2 3 3 2 |
| 갈마들다 | 120 125 120 100 | 2 3 3 2 |
| 어숫거리다 | 125 145 140 125 110 | 2 3 3 2 1 |
| 억지스럽다 | 135 155 150 140 120 | 2 3 3 2 1 |
| 업어넘기다 | 120 135 130 120 110 | 2 3 3 2 1 |
| 어슬렁거리다 | 120 140 140 135 125 110 | 2 3 3 3 2 1 |
| 불그데데하다 | 140 155 165 165 145 120 | 2 3 3 3: 2 1 |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성근(1990)의 자료와 ‘대사전’의 자료는 고저의 음가면에서 주목할 만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밑줄을 친 단어들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김성근(1990)이 발표된 이후 ‘대사전’이 나오기까지 몇 차례의 수정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위의 두 자

료가 보여주는 일치를 근거로 '대사전'의 고저 발음 표시의 책임자를 김성근으로 볼 수 있다.

〈표1〉의 자료 비교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래에 북한에서 발행된 여러 문법서에 제시된 높낮이는 대개 청각적인 인상에 의거하여 그 음가가 결정되었는데 '대사전'에서는 이 방법을 지양하고 '고성능스펙트럼분석기'(2033)에 의지하여 그 음가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김성근(1990)에 따르면 위의 음성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소리의 높이(단위:Hz)를 평균하여 그 음가를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0Hz 미만의 차이는 무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대사전'의 발음 표시로 보인 높낮이의 수치는 절대적인 값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높낮이 수치라는 점이다. 위의 자료에서 첫음절의 Hz 값을 비교해 보면 최소 115에서 최대 140에 이르나 실제 높낮이 값은 모두 '2'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대사전'의 발음 표시가 상대적인 높낮이 값으로 조정된 결과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대사전'의 자료가 가지는 보다 큰 특징은 이 자료가 기존의 북한 문법서에서 소개된 자료 중 어느 것보다도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2〉 기존 문법서 자료들과의 비교¹⁰⁾

| 표제어 | 1960 | 1975 | 1976 | 1979 | 1992 |
|-------|------|-------|------|------|-------|
| 가을 | -- | -- | -- | LH | 22 |
| 가지다 | -- | -- | -- | HLL | 232 |
| 간드러지다 | -- | LLLHL | -- | -- | 22321 |
| 감자 | -- | HL | -- | -- | 22 |
| 거북스럽다 | -- | LLLHL | -- | -- | 23321 |
| 겨울 | HL | -- | -- | -- | 22 |
| 겨울나이 | -- | LLHL | -- | -- | 2332 |
| 경계 | -- | HL | LL | -- | 22 |
| 고스란히 | -- | LLHL | -- | -- | 2332 |
| 고슴도치 | -- | LLHL | -- | -- | 2332 |

10) 여기에서 약호로 쓰인 문법서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960 : 조선어 문법 1(어음론, 형태론),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1975 : 이상벽, 조선말화술, 사회과학출판사

1976 : 조선문화어문법규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 조선문화어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92 :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 | | | | |
|--------|------------|------------|-----------|------------|-------|
| 귀뚜라미 | -- | LLHL | -- | LLHL | 2321 |
| 기름 | HL | -- | -- | -- | 22 |
| 길이(명사) | -- | -- | -- | HL | 22 |
| 나라 | LH | HL | LH | HL | 22 |
| 나라일 | -- | LHL | -- | -- | 233 |
| 나무 | HL | <u>LH</u> | -- | -- | 23 |
| 나서다 | -- | -- | -- | <u>LHL</u> | 232 |
| 나이 | -- | -- | -- | LH | 22 |
| 노래 | -- | -- | -- | HL | 22 |
| 높이(명사) | -- | -- | <u>LL</u> | HL | 22 |
| 누나 | -- | HL | -- | -- | 2:2 |
| 누리 | -- | HL | -- | -- | 22 |
| 누에 | -- | -- | -- | HL | 22 |
| 다리 | -- | -- | -- | LH | 22 |
| 달구지 | -- | -- | -- | <u>LHL</u> | 232 |
| 당원 | -- | HL | -- | -- | 23 |
| 도라지 | -- | <u>LHL</u> | -- | -- | 232 |
| 동생 | -- | HL | -- | -- | 23 |
| 딱다구리 | -- | LLHL | -- | -- | 2321 |
| 마음 | -- | -- | -- | LH | 22 |
| 머리 | LH | -- | -- | -- | 22 |
| 무섭다 | <u>LHL</u> | -- | -- | -- | 232 |
| 문화 | -- | HL | -- | -- | 23 |
| 바위 | -- | -- | -- | HL | 22 |
| 바치다 | -- | -- | -- | HLL | 232 |
| 반갑다 | <u>LHL</u> | -- | -- | -- | 232 |
| 밥그릇 | -- | <u>LHL</u> | -- | -- | 232 |
| 밥상머리 | -- | LLHL | -- | -- | 2332 |
| 보리 | -- | HL | -- | LH | 22 |
| 보리밭 | -- | LHL | -- | -- | 233 |
| 봄보리 | -- | <u>LHL</u> | -- | -- | 232 |
| 부러뜨리다 | -- | LLHL | -- | -- | 22321 |

| | | | | | |
|-------|------------|------------|------------|-----------|--------|
| 부르다 | -- | -- | -- | LHL | 221 |
| 불바람 | -- | -- | <u>LHL</u> | -- | 232 |
| 소나무 | -- | <u>LHL</u> | -- | -- | 232 |
| 소리 | LH | -- | -- | -- | 21 |
| 속도전 | -- | -- | <u>LHL</u> | -- | 232 |
| 아름답다 | -- | -- | -- | LLHL | 2332 |
| 아버지 | <u>LHL</u> | -- | -- | -- | 232 |
| 어머니 | <u>LHL</u> | -- | -- | -- | 232 |
| 인민 | -- | -- | -- | <u>LH</u> | 23 |
| 정치 | -- | HL | -- | -- | 22 |
| 조국 | -- | HL | -- | -- | 23 |
| 조국통일 | -- | LLHL | -- | -- | 2332 |
| 종자 | -- | -- | <u>LL</u> | -- | 22 |
| 착하다 | HLL | -- | -- | -- | 232 |
| 참새 | -- | <u>HL</u> | -- | -- | 21 |
| 처음 | HL | -- | -- | -- | 22 |
| 학교 | -- | HL | -- | -- | 22 |
| 할아버지 | -- | -- | -- | HLLL | 23:32 |
| 항일유격대 | -- | -- | LLLHL | -- | 2:3333 |
| 해바라기 | -- | LLHL | -- | LLHL | 2332 |
| 해빛 | -- | -- | -- | LH | 22 |
| 혁명 | -- | HL | -- | LH | 22 |
| 혁명화 | -- | LHL | -- | -- | 221 |

위의 <표2>에서 보듯이 일부 밑줄 친 단어들 이외에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데, 특히 '나라'의 높낮이가 문법서에 따라 'LH' 또는 'HL'로 기술되었다가 '대사전'에 와서 '22'의 음가로 제시된 것은 '대사전'의 자료가 기존의 자료와는 다른 성격의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다만 적은 수의 자료이기 때문에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1979년에 나온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의 자료와 5/8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만 지

11) 이러한 고저 양상은 서울말의 경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현복(1992:22)에서 서울말의 고저가 'LHLL' 형임을 말한 '해바라기, 귀뚜라미, 아름답다, 할아버지'의 경우도 각각 '2332, 2321, 2332, 23:32'로 나타나서 '귀뚜라미'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한의 경우는 '2321'형으로, 북한에서는 '2332'형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연유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현재로서는 가장 큰 가능성은 대상 자료의 지역성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1975년에 나온 ‘조선말화술’의 자료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놓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황해도 방언 고저의 특징인¹²⁾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3.1.2 고저 유형에 대한 통계적 고찰

이제 ‘대사전’에서 고저가 표시된 5,450 단어¹³⁾를 고찰 대상으로 하여 음절별, 품사별로 고저 유형을 통계적으로 살펴도록 한다. 먼저 각 음절별 고저 유형을 살핀 후에 이들의 의미를 종합하도록 하겠다.

(5) 1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1음절어 | 2 | 2 | — | — | — | — | 2 | 21 |
| | 2: | 15 | — | — | 3 | 1 | 19 | |

1음절어로서 고저 표시가 된 단어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음가도 ‘2’로만 나타난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저의 음가를 상대적인 높낮이 값으로 조정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1음절어의 경우는 주로 음강이 있는 단어들만을 대상으로 음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고저의 면에서는 특별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1음절어 자료들에서 ‘결¹(2:/나뭇~, 살~) : 결²(2/=결기),’ ‘담²(2:/빛에 빛기는 머리털의 결) : 담¹(2/牆),’ ‘돌²(2:/石) : 돌¹(2/아기가 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등의 장단에 의한 최소 대립어를 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어에서도 음강이 변별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¹⁴⁾.

12) 역시 광충구 선생님의 지적이다. 이와 비슷한 보고는 이기문 외 5인(1990), pp.37~8에도 보인다.
 13) 앞에서 자료의 총수가 5,512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7음절 이하의 자료, 품사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가 아닌 것, 그리고 ‘대사전’의 발음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5,450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14) 이현복(1992)에서는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 장단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근거하여 문화어에서의 음강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6) 2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2음절어 | 21 | 100 | 46 | 4 | 19 | — | 169 | 194 |
| | 2:1 | 13 | 9 | 1 | 1 | 1 | 25 | |
| | 22 | 586 | 33 | 11 | 143 | 10 | 783 | 888 |
| | 2:2 | 90 | 1 | 3 | 5 | — | 99 | |
| | 22: | 4 | — | — | 2 | — | 6 | |
| | 23 | 263 | — | — | 29 | 2 | 294 | 327 |
| | 2:3 | 28 | — | — | 1 | — | 29 | |
| | 23: | 3 | — | — | 1 | — | 4 | |

2음절어의 고저는 '21,' '22,' '23'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22'형이 63%나 차지하고 있으며¹⁵⁾, 그것도 명사 부사가 동사·형용사에 비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23' 유형에 속하는 동사 형용사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사·형용사의 기본형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못된다고 할 것이다.

(7) 3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3음절어 | 221 | 58 | 18 | 5 | 13 | — | 94 | 111 |
| | 2:21 | 4 | 3 | 7 | — | — | 14 | |
| | 22:1 | 1 | — | — | 2 | — | 3 | |
| | 222 | 7 | 1 | 1 | 1 | — | 10 | 22 |
| | 2:22 | 11 | — | — | 1 | — | 12 | |
| | 232 | 891 | 258 | 68 | 185 | 11 | 1,413 | 32 |
| | 2:32 | 20 | 6 | 5 | 1 | — | 32 | |

15) 이것은 종전에 제시된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의 하나다. 예를 들어 조현영(1964)에서 'LH,' 'HL' 유형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예가 '22'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음절이 장모음이 아니면 'LH'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말의 고저에 대해서는 이승녕(1960)의 논의를 참조.
 (1) 'LH' → '22': 가루, 노루, 다리(橋, 脚), 마루, 보리, 비녀, 사랑, 술병, 자라, 티럭
 (2) 'HL' → '22': 가마, 거미, 고름(옷~), 고리, 나리, 누에, 머리, 모래, 벌레, 사슴, 자랑, 단꿈, 마늘, 아들

| | | | | | | | | |
|------|------|-----|---|---|----|---|-----|-------|
| 3음절어 | 23:2 | 8 | 1 | — | 19 | 1 | 29 | 1,477 |
| | 232: | 2 | — | — | 1 | — | 3 | |
| | 233 | 425 | — | — | 19 | — | 444 | 462 |
| | 2:33 | 14 | — | — | — | — | 14 | |
| | 23:3 | 3 | — | — | — | — | 3 | |
| | 233: | 1 | — | — | — | — | 1 | |

3음절어에서는 ‘221,’ ‘222,’ ‘232,’ ‘233’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2’ 유형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음절어와 마찬가지로 명사 부사가 동사 형용사에 비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33’ 유형에는 동사 형용사의 예가 없다.

(8) 4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4음절어 | 2221 | 2 | 5 | 1 | — | — | 8 | 8 |
| | 2232 | 8 | 2 | — | 4 | — | 14 | 17 |
| | 223:2 | — | — | — | 3 | — | 3 | |
| | 2321 | 57 | 250 | 205 | 13 | — | 525 | |
| | 2:321 | 1 | 3 | 10 | — | — | 14 | |
| | 23:21 | 2 | — | 20 | 1 | — | 23 | |
| | 2322 | 8 | 1 | 1 | 3 | — | 13 | 13 |
| | 2332 | 428 | 144 | 46 | 66 | 1 | 685 | 726 |
| | 2:332 | 10 | — | — | 1 | — | 11 | |
| | 23:32 | 7 | 2 | — | — | — | 9 | |
| | 233:2 | — | — | — | 17 | — | 17 | |
| | 2332: | 1 | — | — | 3 | — | 4 | |
| 2333 | 10 | — | — | — | — | 10 | 10 | |

4음절어에서는 ‘2221,’ ‘2232,’ ‘2321,’ ‘2322,’ ‘2332,’ ‘2333’ 등의 유형이 나타나는데,¹⁶⁾ 대부분 ‘2332’ 유형(55%)과 ‘2321’ 유형(42%)으로 나누어진다. ‘2332’ 유형

16) ‘가재걸음’의 예에서는 ‘3232’로 고저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2332’의 착오일 듯하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가재’의 음가는 ‘22’의 표시되어 있으나, ‘가재밥’(232), ‘가재탕’(233), ‘가재수염’(2332) 등의 예로 볼 때 ‘가재걸음’의 음가는 ‘2332’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새국어생활 제3권 제4호('93. 겨울)

에는 명사 부사가 동사 형용사에 비하여 다수를 차지하나, '2321' 유형에는 그 반대로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에 비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9) 5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5음절어 | 22321 | 4 | 8 | 15 | 1 | — | 28 | 40 |
| | 223:21 | — | — | 12 | — | — | 12 | |
| | 22322 | — | — | — | 1 | — | 1 | 1 |
| | 22332 | 1 | 1 | — | 2 | — | 4 | 7 |
| | 2233:2 | — | — | — | 3 | — | 3 | |
| | 232:21 | — | — | 1 | — | — | 1 | |
| | 23321 | 8 | 289 | 43 | 2 | — | 342 | 379 |
| | 2:3321 | — | — | 1 | — | — | 1 | |
| | 233:21 | 1 | — | 35 | — | — | 36 | |
| | 23332 | 30 | 13 | 4 | 2 | — | 49 | |
| 23:332 | 1 | — | — | — | — | 1 | | |
| 2333:2 | — | — | 1 | 5 | — | 6 | 56 | |

5음절어에서는 '22321,' '22322,' '22332,' '23221,' '23321,' '23332'의 유형이 나타나, '23321' 유형이 78%를 차지하며, 동사·형용사가 명사·부사에 비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0) 6음절어

| | | 명 사 | 동 사 | 형용사 | 부 사 | 관형사 | 합 계 | |
|------|---------|-----|-----|-----|-----|-----|-----|-----|
| 6음절어 | 2223:21 | — | — | 1 | — | — | 1 | 1 |
| | 223221 | — | 1 | 2 | — | — | 3 | 3 |
| | 223321 | — | 9 | 2 | — | — | 11 | 19 |
| | 2233:21 | — | — | 8 | — | — | 8 | |
| | 233321 | — | 36 | 14 | — | — | 50 | 102 |
| | 2333:21 | — | 1 | 50 | 1 | — | 52 | |
| | 23333:2 | — | — | — | 1 | — | 1 | |

6음절어에서는 ‘222321,’ ‘223221,’ ‘223321,’ ‘233321,’ ‘233332’의 유형이 나타나, ‘233321’ 유형이 81%를 차지하며 동사·형용사가 명사·부사에 비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음절별, 품사별 고저 유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어휘의 고저는 ‘2’의 음가로 시작된다. 이는 고저의 음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정된 값이기 때문이다.

(2) 각 음절별로 다수를 차지하는 고저 유형은 ‘22’(2음절어), ‘232’(3음절어), ‘2332’(명사·부사), 2321(동사·형용사)’(4음절어), ‘23321’(5음절어), ‘233321’(6음절어)이다.

(3) ‘23,’ ‘233,’ ‘2333’ 등과 ‘같이’ 끝 음절이 올라가는 상승조에는 동사·형용사의 예가 없다. 이것은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에만 고저의 음가가 표시된 결과다.

(4)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3음절어 이상에서 ‘-21’로 끝나는 어휘는 동사·형용사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32’로 끝나는 어휘는 명사·부사일 가능성이 높다.

(5) 3음절 이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품사별로 볼 때, 명사와 부사가 한 부류를 형성하고, 동사와 형용사가 다른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고저에 대한 논의는 이 외에도 남북한의 차이, 합성어 형성 및 곡용, 활용시의 고저의 변화라든가 선행하는 또는 후행하는 음소적 환경에 따른 높낮이 값의 분포 등 분석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직 필자가 여기에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3.2 장단

앞 절에서 논의한 고저와는 달리 장단에 대한 것은 북한에서 ‘6권 사전’에서 이미 그 정보가 제시된 바 있고, 또한 장단에 대한 남한의 논의도 많아서 이에 대한 남북한의 비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6권 사전’과 ‘대사전’의 장단의 비교를 주로 하면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3.2.1 장모음 → 단모음의 자료

‘6권 사전’에서 장음인 어휘가 ‘대사전’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장단 비교 자료(1)

(약호 : #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 장모음 어휘, × 단모음 어휘)

| 조선말사전(1960~62) | 조선말대사전(1992) | 남한 | 비고 |
|----------------|--------------|----|---------------|
| 가: 다루다 | 2332 | ○ | (땅을) 갈고 다루다. |
| 가: 소로이 | 2332 | ○ | |
| 가: 소롭다 | 2332 | ○ | |
| 가: 없이 | 232 | ○ | |
| 가: 장자리 | 2332 | ○ | |
| 가: 재 | 22 | ○ | |
| 가: 재결음 | 3232 | ○ | |
| 가: 재수염 | 2332 | ○ | |
| 간: 간이 | 232 | ○ | 이따금씩 |
| 간: 간# 하다 | 2321 | ○ | 懇懇- |
| 간: 간히 | 232 | ○ | |
| 갈: 가리 | 232 | ○ | '가리가리'의 준말 |
| 갈: 갈 | 22 | ○ | |
| 갈: 갈이 | 232 | ○ | '가을갈이'의 준말 |
| 갈: 건이 | 232 | ○ | '가을건이'의 준말 |
| 갈: 다 | 21 | ○ | 땅을 파서 뒤집다. |
| 감: 격 | 22 | ○ | |
| 감: 꾀다 | 232 | ○ | 감사납고 험상꾀다. |
| 감: 노라니 | 2332 | ○ | |
| 감: 노랗다 | 2332 | ○ | |
| 감: 노래지다 | 23321 | ○ | |
| 감: 노르다 | 2332 | ○ | |
| 감: 다 | 22 | ○ | |
| 감: 돌다 | 232 | ○ | |
| 감: 돌이 | 232 | ○ | 감돌며 피를 부리는 사람 |
| 감: 발 | 22 | ○ | 발감개 |
| 감: 빨다 | 232 | ○ | 감칠맛나게 입으로 빨다. |
| 감: 빨리다 | 2321 | ○ | '감빨다'의 피동 |

| | | | |
|----------|--------|---|----------|
| 감: 치다 | 232 | ○ | |
| 감: 칠맛 | 232 | ○ | |
| 감: 침질 | 232 | ○ | |
| 감: 파르다 | 2321 | ○ | |
| 가: 룩#하다 | 2321 | ○ | |
| 가: 룩히 | 232 | ○ | |
| 거: 개 | 21 | ○ | 擧皆 |
| 거: 날다 | 232 | ○ | |
| 거: 둥길 | 233 | ○ | |
| 거: 드름 | 232 | ○ | |
| 거: 드름스럽다 | 223321 | ○ | |
| 거: 드름스레 | 22332 | ○ | |
| 거: 드름쟁이 | 22321 | ○ | |
| 거: 들다 | 232 | ○ | |
| 거: 룩#하다 | 2321 | ○ | |
| 거: 리 | 22 | ○ | 距離 |
| 거: 리표 | 233 | ○ | 距離標 |
| 거: 멀장 | 233 | ○ | |
| 거: 방지다 | 2321 | ○ | |
| 거: 벽스럽다 | 23321 | ○ | 巨擘一 |
| 거: 북살스럽다 | 223221 | ○ | |
| 거: 북살스레 | 22321 | ○ | |
| 거: 북스럽다 | 23321 | ○ | |
| 거: 북스레 | 2332 | ○ | |
| 거: 북#하다 | 2321 | ○ | |
| 거: 지계 | 232 | ○ | ‘지계’의 하나 |
| 거: 지꼴 | 233 | ○ | |
| 거: 짓 | 22 | ○ | |
| 거: 짓말 | 233 | ○ | |
| 거: 짓말쟁이 | 23321 | ○ | |
| 거: 짓부리 | 2332 | ○ | |
| 계: 시다 | 221 | ○ | |

42 새국어생활 제3권 제4호('93. 겨울)

| | | | |
|---------|------|---|-------------|
| 고:이 | 23 | ○ | |
| 미:닫이 | 232 | ○ | |
| 바:라지다 | 2321 | ○ | |
| 새:길 | 22 | ○ | 새길 |
| 색:시 | 21 | ○ | |
| 소:가지 | 221 | ○ | |
| 안:치다 | 232 | ○ | 앞으로 와 닥치다. |
| 온:갖 | 23 | ○ | |
| 우:짓다 | 232 | ○ | |
| 주:리다 | 232 | ○ | |
| 혜:살균 | 233 | ○ | 혜살균 |
| 가:년스레 | 2332 | × | cf) 큰사전 : × |
| 가:량맞다 | 2332 | × | |
| 가:량스레 | 2332 | × | cf) 큰사전 : ○ |
| 가:칠 #하다 | 2321 | × | cf) 큰사전 : ○ |
| 가:칫 #하다 | 2321 | × | cf) 큰사전 : ○ |
| 간:단 #하다 | 2321 | × | cf) 큰사전 : ○ |
| 갈:발 | 22 | × | cf) 큰사전 : × |
| 차:마 | 21 | × | cf) 큰사전 : ○ |
| 가으내: | 232 | × | |
| 간간: #하다 | 2321 | × | 약간 짠 듯하다. |
| 간간: 히 | 232 | × | |
| 갈게: | 22 | × | '게'의 한 종류 |
| 갈범: | 22 | × | |
| 갓난애: | 232 | × | |
| 쌈쌀: #하다 | 2321 | × | |
| 엇셈: | 23 | × | |
| 열없: 다 | 232 | | 열:없다 |
| 지긋: 이 | 232 | × | |
| 짓밟: 다 | 232 | × | |

위의 <표3>에 제시된 자료는 크게 '6권 사전'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없다가 '대사전'에 와서 비로소 그 차이가 나타난 경우와(○로 표시된 어휘들) '6권 사전'에서는 남북한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사전'에 와서는 그 차이가 없어진 경우(×로 표시된 어휘들)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번째 유형의 어휘들은 우리가 남북한의 발음 규범의 비교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예들로 남북한 언어 통일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어휘 유형이 된다. 줄고(1993)에서는 장단의 구별이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남북한에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각 개별 어휘에 있어서의 장단의 구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논의한 것을 실제적인 예들로 확인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6권 사전'에서 장음이던 것이 '대사전'에 와서 단음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의 음장의 변화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것은 못된다는 사실이다. 왜냐 하면, '6권 사전'의 장단 표시는 많은 경우 한글학회에서 펴낸 '큰사전'의 음장과 일치하기 때문에¹⁷⁾ 오히려 그 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음장의 남북한의 차이가 '대사전'의 출판물 계기로 비로소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드는 어휘들의 목록을 뽑아 앞으로의 남북한 언어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은 다시 '6권 사전'에서 제1음절에 음장이 나타난 경우와 제2음절 이하에서 음장이 나타난 경우로 세분할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의미 있는 남북한의 일치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2음절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예들에서 '표준 발음법'에서의 원칙과 일치함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대사전'에는 <표4>에서 볼 것처럼 '차돌:', '가루논:', '가다라굴:' 등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예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이 완전하게 남북한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2.2 단모음 → 장모음의 자료

<표4> 장단 비교 자료(2)

(약호 : \$ 부표제어, #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 장모음 어휘, × 단모음 어휘)

17) <표3>에 제시된 예들 중에서 '가:랑스래, 가:칠하다, 가:춧하다, 간단하다, 차마' 등이 '조선말사전'과 '큰사전'의 음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 조선말사전(1960~62) | 조선말대사전(1992) | 남한 | 비고 |
|----------------|--------------|----|----|
| 가망다 | 2:32 | ○ | |
| 가공 | 2:2 | × | 加工 |
| 가늘다 | 2:32 | × | |
| \$ 가는 눈 | 2:33 | × | |
| \$ 가는 바디 | 2:332 | × | |
| \$ 가는 베 | 2:33 | × | |
| 가담 | 2:2 | × | 加擔 |
| 가치 | 2:2 | × | 價値 |
| 각오 | 2:2 | × | 覺悟 |
| 거세다 | 2:32 | × | |
| 괴로이 | 2:32 | × | |
| 가루눈 | 232: | × | |
| 차들 | 22: | × | |
| 가시 | 22: | × | |
| 가시나무 | 23:32 | × | |
| 가시눈 | 23:2 | × | |
| 가시덤불 | 23:32 | × | |
| 가시밭 | 23:3 | × | |
| 가시쇠 | 23:3 | × | |
| 가시줄 | 23:3 | × | |
| 가느스름 # 하다 | 2333:21 | × | |
| 가마득히 | 223:2 | × | |
| 가마득 # 하다 | 223:21 | × | |
| 가마무트름 # 하다 | 22233:21 | × | |
| 가마반드르 # 하다 | 22233:21 | × | |
| 가마아득 # 하다 | 2223:21 | × | |
| 가무끄름 # 하다 | 2233:21 | × | |
| 가무대대 # 하다 | 2333:21 | × | |

| | | |
|------------|----------|---|
| 가무맹맹 # 하다 | 2333:21 | × |
| 가무레 # 하다 | 223:21 | × |
| 가무스레 # 하다 | 2233:21 | × |
| 가무스름 # 하다 | 2233:21 | × |
| 가무스름히 | 2233:2 | × |
| 가무잡잡 # 하다 | 2233:21 | × |
| 가무죽죽 # 하다 | 2233:21 | × |
| 가무칙칙 # 하다 | 2233:21 | × |
| 가무퇴퇴 # 하다 | 2233:21 | × |
| 가뱃이 | 23:2 | × |
| 가슴츠레 # 하다 | 2333:21 | × |
| 가지런 # 하다 | 223:21 | × |
| 가지런히 | 223:2 | × |
| 감감히 | 23:2 | × |
| 강파리 # 하다 | 233:21 | × |
| 가우듬 # 하다 | 233:21 | × |
| 가우듬히 | 233:2 | × |
| 가웃드름 # 하다 | 2233:21 | × |
| 가웃드름히 | 2233:2 | × |
| 갈짜막 # 하다 | 232:21 | × |
| 거머무트름 # 하다 | 23333:21 | × |
| 거머무트름히 | 23333:2 | × |
| 거무스레 # 하다 | 2333:21 | × |
| 거무스름 # 하다 | 2333:21 | × |
| 거무스름히 | 2333:2 | × |
| 거무죽죽 # 하다 | 2333:21 | × |
| 거무축축 # 하다 | 2333:21 | × |
| 거무충충 # 하다 | 2333:21 | × |
| 거무칙칙 # 하다 | 2333:21 | × |
| 거무테테 # 하다 | 2333:21 | × |
| 거무튀튀 # 하다 | 2333:21 | × |
| 거무트름 # 하다 | 2333:21 | × |

| | | | |
|---------|---------|---|-----|
| 거무턱틱#하다 | 2333:21 | × | |
| 거슴츠레 | 2332: | × | |
| 단단#하다 | 23:21 | × | |
| 비젓이 | 23:2 | × | |
| 생긱이 | 23:2 | × | |
| 일찌기 | 23:2 | × | 일찍이 |
| 조용히 | 23:2 | × | |

〈표4〉의 자료에서는 ‘가:망다’¹⁸⁾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남북한의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여기에도 제1음절에 음장이 나타나는 경우와 제2음절 이하에 음장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에서는 ‘가늘다, 거세다, 괴롭다’ 등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 장모음이 수반될 수 있는 고유어 형용사들이 많음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들이다. 특히, ‘가공, 가담, 가치, 각오’ 등의 한자어들은 중세 국어의 성조와의 비교에서도 장음이 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예들인 것이다¹⁹⁾.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의 어휘들은 다시 합성어의 경우와 ‘-하다’ 파생 형용사의 경우로 세분된다. 합성어의 경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시:’인데 중세 국어의 ‘가·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해서 제2음절에 음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가다리굴:, 가루는:, 차들:’의 경우는 〈표3〉에서 본 ‘가오내, 갈게, 갈범, 갓난애, 잇섬’ 등의 예들과 비교할 때 합성어에서 후행 요소의 음장이 단음화되는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3)의 해설에도 맞지 않는 예들이다²⁰⁾. 따라서 이들 예에서 나타나는 음장은 잘못 표시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다’ 파생 형용사의 예들은²¹⁾ 남한에서도 이러한 음장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나 표현성 장음을 음운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남북한의 차이이다.

- 18) 이 ‘가:망다’의 경우는 그 동안 남한의 사전에서도 음장이 일치하지 않던 어휘였으나,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된 ‘표준어 모음’에서 비로소 장모음 어휘로 확정된 것이다.
- 19) 중세 국어 자료에서 ‘加’는 평성, ‘價’와 ‘覺’은 거성의 성조로 나타난다. ‘가공, 가담’의 경우는 서남 일부 방언에서 음장을 보이기는 한다.
- 20)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260)에는 ‘돌:~망들, 눈:~함박눈’ 등을 근거로 합성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단모음화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 21) ‘-하다’ 파생 형용사들에서의 음장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창섭(1991)의 논의를 참조.

따라서 표현성 장음의 음운론적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²²⁾.

4. 맺음말

본고는 1992년 북한에서 발행된 ‘대사전’이 고저와 음장을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발음 표시 체계를 채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어의 고저와 음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논의들에서 이 방면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였던 것에서 필자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한 것인데, 처음의 의도보다 미진하고 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채로 논의를 끝내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²³⁾. 이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면서 본고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대사전’의 발음 자료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시된 그 어떤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저 자료의 경우는 상당 부분 지금까지 여러 문법서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자료와 그 음가가 판이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자료의 지역적인 차이에서 나타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2. 고저의 자료는 김성근(준박사)의 주도하에 음성 분석 실험을 통하여 높낮이 값을 결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5,450여 단어의 고저를 통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음절별, 품사별로 고저의 특징적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음절별로는 ‘22’(2음절어), ‘232’(3음절어), ‘2322, 2321’(4음절어), ‘23321’(5음절어), ‘233321’(6음절어)의 유형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유형의 다수를 차지하는 품사들의 분포에서 명사·부사가 한 부류를 형성하고, 동사·형용사가 또 다른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였다.

3. 장단의 자료는 ‘조선말사전’의 자료와 비교할 때,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나타난

22) 여기에서 분석하지 못한 경우들은 ‘장모음 → 장모음’의 자료와 ‘단모음 → 단모음’의 자료인데, 자료의 양에 비하여 남북한의 차이가 드러나는 표제어는 많지 않다는 사실만 지적하기로 한다.

23) 본고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 중에는 북한에서 북함어에서의 경음화가 점차 완화된다고 있음을 반영한 자료도 있다. 예를 들면, ‘가래날, 가래노, 가래바닥, 가마니뚱, 가마방석, 가운데소리, 가을일, 가지수, 강비탈, 강엿, 발뒤꿈치, 업신여기다’ 등은 ‘조선말사전’,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서 경음 표시가 되어 있던 예들인데, 이번의 ‘조선말대사전’의 발음 표시에서는 경음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철자의 발음의 증가로 경음화의 발음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반영한 자료로 보인다.

경우와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남북한의 차이가 가장 현저한 경우는 '6권 사전'에서는 장모음으로 표시되었던 것이 '대사전'에 와서 단모음으로 표시된 자료임을 알았다. 표현성 장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장단의 차이는 이에 대한 음운론적 처리에 대한 원칙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경우로 보았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1990), 북한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회(편),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Ⅰ).
- 권인한(1993), '표준 발음법'과 '문화어발음법' 규정,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김무림(1989), 남북한의 표준 발음법,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백의.
- 김성근(1990), 조선어 단어의 악센트 문제, 조선어문 1990년 1호.
- 김영배(1988), 문화어의 음운 현상,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성 장음,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남기심(1987), 국어 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18.
- 남성우·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 생활, 고려원.
- 박금자(1989), 북한의 국어 사전 평설(評說)—〈조선말사전〉, 〈문화어사전〉, 〈현대조선말사전〉을 중심으로—, 고영근(편),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 해설, 사회과학출판사.
- 이기문 외 5인(1990), 국제학술원협회의 언어 지도 간행에 대비한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1987~90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비에 따른 학술 결과 보고서.
- 이병근(1986),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 _____ (1989), 국어 사전과 음운론, 애산학보 7, 애산학회.
- _____ (1990 ㄱ), 북한의 국어 사전과 사전학, 국어국문학회(편),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 지식산업사.
- _____ (1990 ㄴ), 한국어 사전 편찬사에서 본 발음 문제, 한국어 사전학의 과제와

- 전망,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승녕(1960), 현대 서울말의 Accent의 고찰, 국어학논고, 동양출판사.
- 이은정(1990), 남북한의 발음 규범 비교 검토, 한국어연구논문 25,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 이현복(1987), 국어 사전에서의 발음 표시, 어학연구 2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2), 남북한의 우리 말소리에 관한 연구 현황, 한국어연구논문 34,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 전학석(1991),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 조현영(1964), 우리말 악센트의 구성과 변화(1,2), 조선어학 1964년 5,6호.
- 차재은(1991), 북한의 사전 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2, 녹진.